

# 기계설비건설인 2016년 교례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월 5일 기계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계설비건설인 2016년 교례회'를 개최했다

## 신년교례회, 협회 · 조합 공동 개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지난 1월 5일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회원사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계설비건설인 2016년 교례회를 개최했다.

## 이상일 회장 “기계설비의 독립된 업종 인정을 위한 육성 발전 정책 추진”

협회 이상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나해 우리 협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주환경 개선과 기계설비건설업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특히 건설업을 가장 어렵게 했던 최

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제도가 폐지되고 종합심사제의 정착과 표준시장단가로 개선되어 앞으로 적정공사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상일 회장은 또한 “협회는 표준품셈 하락 최소화, 공사용 관급자재 축소, 적정한 하도급예산 편성을 위해 종합건설사와의 상생협력 강화 및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성화를 비롯해 플랜트 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추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인정기능사에 생산자동화 종목 추가 지정 등 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펼쳤으며, 설비조합은 수익사업 확대 및 IT시대에 걸맞은 부서 통합폐합과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며,

연구원은 국토교통부 R&D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상일 회장은 “우리 협회와 조합은 지난해 명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 공제조합으로 변경하여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과 더불어 협회, 조합, 연구원 모두가 명실상부한 ‘기계설비’로 거듭나게 됐다”면서 “이는 대중적 인식 개선은 물론 미래 첨단산업의 이미지 제고와 전기설비처럼 독립적인 업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우리 협회의 새로운 위상을 대내외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일 회장은 “우리 기계설비가 토목, 건축, 전기보다 항상 홀대받고 만년 하도급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기계설비업계가 큰 어려움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걱정이 가득하다”고 언급하며 “기계설비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대한기계설비단



이상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기계설비가 파리기후협약 시대를 맞이하여 독립 업종으로 인정받기 위해 정부 및 국회에 강력한 협조요청을 하고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 관련법 개정 및 제정이 9대 집행부에서 차기 집행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석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조합원과 함께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땀과 열정으로 조합원 지원 서비스에 매진해 나갈 것이니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기계설비산업 육성발전위원회를 구성, 에너지 절감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계설비가 파리기후협약 시대를 맞이하여 독립업종으로 인정받기 위해 정부 및 국회에 강력한 협조요청을 하고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 관련법 개정 및 제정이 9대 집행부에서 차기 집행부로 이어질



교례회 참석자들의 국민의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협회, 조합, 연구원과 회원 여러분이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 김기석 이사장 “조합원과 함께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역할 충실”

조합 김기석 이사장은 “올해는 조합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이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명칭변경을 하고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는 첫 해이다”면서 “이는 기계설비산업의 전문성과 녹색건설을 견인해 나갈 업계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며, 또한 업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공제조합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의지의 표현이다”고 강조했다.

김기석 이사장은 또한 “지난해는 세계경기의 한파 속에서 국내 건설시장은 수주물량 감소와 저가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기계설비산업이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시대의 녹색건설산업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신 여러분의 땀과 열정만큼은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성장동력이며 이러한 소중한 자산을 바탕으로 올해도 순항해 나갈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기석 이사장은 이어서 “조합은 협회의 제선개선 노력이 올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열정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조합 구현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지난해 업무효율성 향상과 조직 합리화를 위한 조직구조 개선과 인사시스템 개선 등 부단한 노력을 추진했으며, 조합원의 업무편익 증진을 위해 보증·용자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기준완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룬 해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기석 이사장은 “조합은 앞으로도 각종 상품개발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합원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조합원과의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보증수수료율 조정 검토, 리스크 감소방안 강구,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 등에도



이상일 회장을 비롯한 기계설비건설업계 원로들이 건설경기 회복을 기원하며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좌로부터 김중서 전임감사, 정승일 협회 고문, 강석대 명예 회장, 이상일 회장, 홍평우 고문, 백종운 서울시회 회장, 김기석 조합 이사장, 이연구 연구원장)

만전을 기하여 보증·공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조합원과 함께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탐과 열정으로 조합원 지원 서비스에 매진해 나갈 것이니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丙申年 힘찬 전진을 다짐하며 건배 제의**

이어서 홍평우 협회 고문과 백종윤 서울특별시회 회장 그리고 김재홍 부회장 회장이 건배를 제의했다. 이날 건배 제의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소망과 기계건설업계 발전을 기원하는 염원을 담았다. 



**홍평우 협회 고문**

제가 병신년 원숭이띠입니다. 붉은 원숭이해는 복과 재물을 불러오는 아주 좋은 해라고 합니다. 제가 업을 시작하지 40여년이 됐는데, 주식회사를 정식 등록된 회사로는 우리 업계에서 제일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욕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천억원을 할 수 있지만 1천억원만 하고, 1천억원을 할 수 있는 것은 5백억원만 하자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업종은 특히 욕심을 내지 말아야 옥석을 가려 양질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로 밀어주고 참아줄 수 있으면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거래하는 회사나 경제 등이 어떻게 흘러갈지 1~2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는 뜻에서 건배제의는 “모바일”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바라는 대로 일어나라. 모바일!



**백종윤 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우리 민족은 새해에 함께 모여서 음식과 술을 나누는 미덕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사가 복요리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밀어주면 복을 받고 한번 참아주면 또 복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밀복과 참복으로 건배하겠습니다. 밀복! 참복!



**김재홍 협회 부회장**

교례회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을 빌겠습니다. 매년 이맘때 쯤 되서 세계적인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우리 기업인들은 심각한 고뇌를 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병신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협회에 큰 행운이 오길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남는 것도 경쟁력이다”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맞아맞아”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남는 것도 경쟁력이다. 맞아! 맞아!